

르브론 제임스, '미국 남성이 가장 좋아하는 유명인'

르브론 제임스의 인기가 대통령을 넘어섰다.

10일 농구 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미국의 브랜드 선호도 조사 기업인 MBLM은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MBLM은 최근 '미국 남성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인 10걸'을 조사 발표했다. 설문 대상의 연령은 1980년~2000년대 사이의 젊은 층이다.

그 결과, 1위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였다. 르브론의 뒤를 이어 2위 자리에는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자리했고 3위에는 '더 락'으로 잘 알려진 배우 드웨인 존슨이 위치했다. 르브론 외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 역시 5위를 차지하며 전국 구스타임을 입증했다. 6위~10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톰 헝크스, 세레나 윌리엄스, 리한나, 미셸 오바마가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르브론은 MBLM이 발표한 또 다른 조사인 '미국 여성이 가장 사랑하는 유명인 10걸'에서도 10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여성이 사랑하는 10걸 중 남성 스포츠 스타는 르브론이 유일하다.

한편 르브론은 레이커스 이적 후 첫 25경기에서 717점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르브론이 기록한 '레이커스 입단 후 첫 25경기'에서의 717점은 1975~1976시즌 카림 압둘-자바의 714점을 넘는 역대 1위 기록이다. 압둘-자바의 뒤를 잇는 기록은 1996년 사킵 오닐의 기록으로, 오닐은 올랜도 매직에서 레이커스로 이적한 뒤 첫 25경기에서 642점을 몰아쳤다.

한인 3세 '머레이', 대학 풋볼 접수하고 MLB로 전향?

한인 3세인 미국 대학풋볼 최고의 선수 카일러 머레이(21)가 진로 선택을 두고 미국 스포츠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머레이는 지난 8일 미국대학체육협회(NCAA)가 최우수 풋볼 선수에게 수여하는 2018 하이즈먼 트로피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클라호마대학의 쿼터백을 맡고 있는 머레이는 대학 최고 쿼터백에게 주어지는 데이비 오브라이언상, AP 선정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었다.

하이즈먼 트로피를 받은 머레이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영광을 평생 가슴에 담은 채 살아가겠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SNS 프로필에 '그린라이트(green light)'라고 적은 뒤 옆에 '초록불'이라고 한국어로 써놓기도 했다.

한국어를 쓴 것은 가족과 관련이 있다. 머레이의 외할머니는 한국인으로, 머레이의 어머니 이름인 '미시'도 결혼 전 가졌던 한국식 이름인 '미선'에서 따

온 것이다.

만능 스포츠맨인 머레이는 풋볼뿐만 아니라 야구에도 재능이 있다. 이미 올해 6월 있었던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지명을 받았고, 466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았다.

풋볼 선수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장 175cm, 체중 88kg로 풋볼선수로서는 체격이 큰 편이 아니라는 점, 풋볼이 야구보다 부상 위험이 더 크다는 점으로 인해 야구에 전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론 두 종목에 동시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머레이가 야구를 선택해 메이저리거가 된다면, 빅자노비츠와 보 잭슨에 이어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로는 3번째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선수가 된다. 2007년 이 상을 받은 팀 티보가 마이너리그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어 머레이는 4번째가 될 수도 있다.

벤투 감독,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쉽게 보는 것"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개최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한다.

14일 'OSEN'에 따르면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는 20일 최종 엔트리를 결정해 23일 아부다비로 출국한다. 새해 첫 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 모의고사를 치른 뒤 본무대에 돌입한다. 한국은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비롯해 이란, 일본 등과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한국은 1960년 우승 이후 반세기 넘게 아시안컵 트로피를 품에 안지 못했다. 2015년에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홈팀 호주와 연장 끝에 준우승에 만족했다.

한국 축구는 벤투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 벤투 감독 부임 이후 치른 A매치 6경기(3승 3무) 패가도를 이어갔다. 코스타리카, 칠레, 우루과이,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나 거둔 성적표다. 아시안컵 우승 후보국들은 일제히 한국

을 경계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우리가 우승후보 중 하나가 될 순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아시안컵서 정말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다는 걸 잘 생각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아시안컵 C조에서 중국,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등 비교적 약체들과 경쟁한다. 끈기있는 상대들을 모두 꺾었지만 벤투 감독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우리가 가장 크게 범할 수 있는 실수다. 쉬운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벤투 감독은 20일까지 울산에서 한국, 일본, 중국서 뛰는 23명을 점검해 숨은 진주를 찾는다. 이후 유럽, 중동 등지에서 활약하는 주축 자원을 포함해 최정에 전력을 꾸려 아시안컵 정상 도전에 나선다.

벤투 감독은 "울산에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관찰하겠다."며 "현지에 가서는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은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KELLERWILLIAMS SHORELINE

BRE #02036043

714-822-0345

3030 Old Ranch Pkwy. #400 Seal Beach, CA 90740 yeetakre@gmail.com



Yee Tak (탁 이석)

Economics and Certificate in Quality Analysis at Arizona State 건국대 경영학과

주택 / 커머셜 / 인듀스트리얼 - 1031 Exchange

부동산에 대한 모든것! 5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정확한 통계 분석과 네고를 통한 최고의 가격 판매와 최저가 구매

Corona Downtown



Liquor + Building
Liquor \$250,000 + Building \$800,000 + Inventory = 총 \$1,05M + Inventory
리커 매장 4만 1천, 체커상(물품 1M) + 로또 = 넷 1만 총 넷 2만, 인벤토리 약 3만, SBA용자 가능.

Cypress 벵글우드



방 4-화 2 1,564sq
최고의 학군중의 하나인 사이프러스 학군 업그레이드된 밝고 넓은 부엌
\$539,900

실비치 레저월드 55+



방 2-화 1 900 Sq
다양한 편의 시설
편리한 교통을 갖춘 최고의 시니어 단지중 하나인 실비치 레저월드입니다.
\$228,900